

생수시판 허용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부터

정 홍 식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수의 제조허가권과 관리권이 각 시·도지사에게 넘겨지는 것을 계기로 생수의 시판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생수시판을 허용한 정부의 시각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수돗물은 전혀 이상이 없으며 국민소득 수준이 2천달러를 넘게되면 국민의 건강지향적 욕구가 좋은 질의 음료식품을 찾게돼 생수시판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상수원의 수질이 이미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졌고, 수돗물에서 중금속 발암물질 검출 소동이 매해마다 벌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상수원수는 부영양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생수시판 허용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생수시판을 허용할 것이냐의 여부보다는 ‘수돗물이 과연 마실만 한가’라는 것에 대한 불신감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근거로 국민들이—물론 소수지만—좋은 질의 음료식품을 찾게된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일부 여유있는 계층이 생수를 찾는 이유는 물에 대한 기호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나 물맛이 좋았고 따라서 특별히 맛이 좋은 물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매년 수돗물 파동을 겪으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생수가 없으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해소는 생수시판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 수돗물 그자체에 대한

신뢰성 증진으로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것을 현시점에서 반대하는 근거를 몇가지 들어보자.

첫째, 국민은 정부의 수질개선의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론무마용(?)으로 내놓는 방대한 수질개선에 관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않고 있고, 오히려 환경관련예산이 올해는 대폭 삭감된 것이다.

예를들면 목포시민의 경우 몽탄취수장에서 하루 공급되는 수돗물이 50만ton인데 이 양은 목포시민 1일 수요량 5만~6만ton에 비해 쓰고도 남으나 시민의 85%가 이물을 마시지 않는다. 팔당물이 2급수니 3급수니 하고 있으나 그나마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서울시민 44% 이고, 나머지 66% 사람들은 물속 1m 앞도 안보인다는 한강하류물을 걸러서 음용수로 먹고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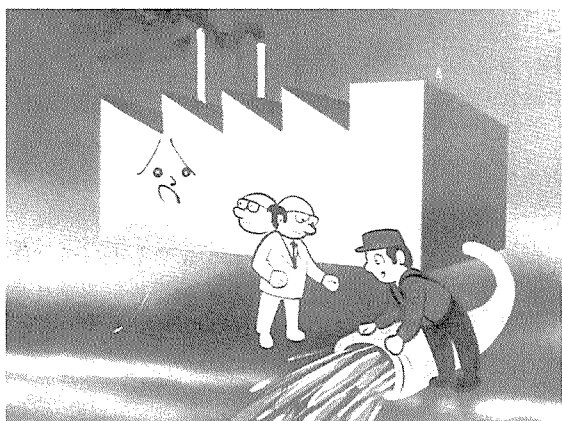
둘째, 생수의 시판은 계층의 분화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 생수의 가격은 현재도 수돗물보다 2천배나 비싼 수준이고 외국의 값비싼 생수가 앞을 다투어 수입·시판될 경우 더욱 비싸질 것이다.

이미 강남의 아파트 등지에서는 미국산 정수자판기가 설치되어 수돗물을 정화시켜 원가(ton당 81원)보다 무려 8백6십여배나 비싼값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으로는 설악산에서 날라온 물, 제주도에서 가져온 물, 어디 약수터에서 떠온 물이다. 하여 비싸게 주고 사마실 것이다.

결국 생수시판을 허용할 경우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덜 오염된 생수를 마시는 사람과의 차등은 생기게 마련이고, 이는 과소비 사치풍토로 이어진다. 물에 대한 과소

생수시판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제공자인 재벌기업에게
 생수시판권을 주어
 수질오염자가 수질악화를
 원인으로 다시 돈을 버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비는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는 과소비와는 차원을 달리해서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과소비·상치풍토 배격은 일관성마저 상실할 것이다.

세계,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제공자인 재벌기업에게 생수시판권을 주어 수질오염자가 수질악화를 원인으로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소형용기 사용으로 인한 비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제품의 안전성, 지하수로서 지하자원의 간리 문제등이 지적된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수는 언제든지 땅을 파면 충분히 나오며 지하에서 나오는 물은 항상 깨끗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보건환경 연구원이 8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역 우물중 70%가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에 의해 오염되어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76년부터 지하수 보호 및 오염방지법이 제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하수 자원을 보호할 법조문은 고사하고 실태조사도 안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생수인들 믿을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및 국회에서 조차 반대하는 생수시판이 내년에 허용될 경우 생수를 먹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정수기제조업체나 생수업자들의 홍보에 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물을 끓이면 죽은 물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근거로 산소가 제거되고 물에 녹아있는 칼슘과 같은 무기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물의 생기가 없어지며, 또한 물분자의 결합구조가 달라져서 몸에 덜 좋다 등이다.

먼저 물을 끓이면 산소가 제거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이 식수를 통해

얻는 산소의 양은 매우 적은 양으로 이것은 그 사람이 크게 한번 숨쉴때 들이마시는 산소량의 0.025% 밖에 안되는 적은 양이다. 그래도 싫으면 끓인물을 식혀서 이그릇 저그릇으로 몇번 읊기다 보면 어느정도 산소는 채워진다.

둘째로, 칼슘과 같은 무기물이 제거된다 는 주장에 대해서, 칼슘과 같은 무기물질이 제거될때 우리몸에 유해한 중금속이온도 함께 제거되므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무기물은 음식에서 섭취하고, 물은 중금속등 불순물이 없거나 발암물질의 하나인 트리할로메탄과 그외 각종 오염물질·세균등이 함께 제거될 수 있도록 오히려 끓여서 먹는것이 좋다.

세째로, 물분자간의 결합구조가 달라져서 좋지않다는 것은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그래도 짹짹하면 얼지않도록 냉각시켜 먹으면 된다.

**상수도는 과연 깨끗한가.
오염됐으면 과연 얼마나
오염됐는가.
죽은 물을 살리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

이와같은 상수시판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찬·반시비는 결국 수도물의 안정성으로 지적된다. 상수도는 과연 깨끗한가, 오염됐으면 과연 얼마나 오염됐는가, 죽은물을 살리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온 국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때이다. [2]

〈필자=녹색의 전화 상담원〉

국민건강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